Eugene's FICC Update
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 02)368-6138_ yhcha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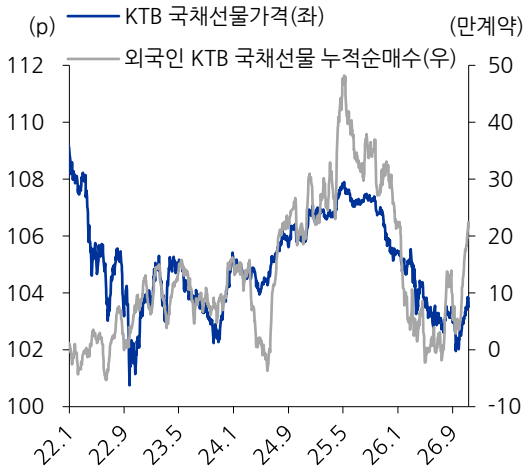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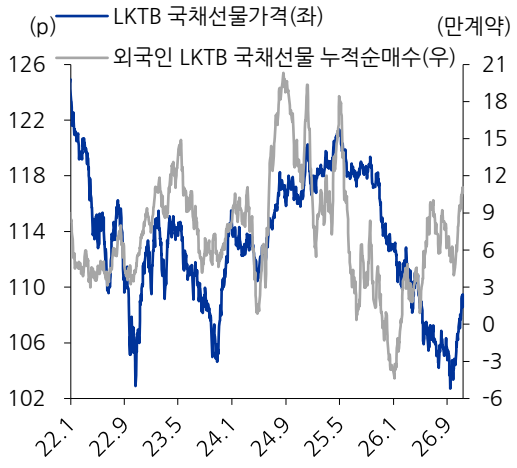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1/1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29%	9.6	1.5	77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950%	10.0	-1.8	56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2.1	21.7	25.4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51	-32.0	-4.0	-193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08.56	-92.0	6.0	-436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740%	-	10.8	126.8
	미국채 10년물	4.992%	-	2.7	82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5.2	-	33.4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328%	0.4	4.1	47.3
	호주국채 10년물	5.044%	5.4	-3.6	29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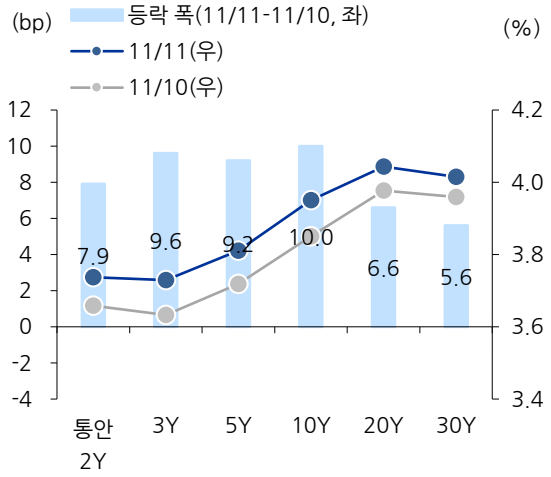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전구간 큰 폭 약세 마감.
- 간밤 미국장 영향이 컸음. 미국 CPI 예상치 상회와 함께 연준 관계자들의 인상 지지 발언, 특히 월러 이사의 50bp 언급 발언의 충격으로 미국 금리를 비롯해 국내 금리 역시 개장 초부터 상승폭 컸음.
- 국내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외국인 역시 국채선물을 순매도했고, 공정위의 PD 관련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면서 경계심 확산되며 금리 상승폭 지속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,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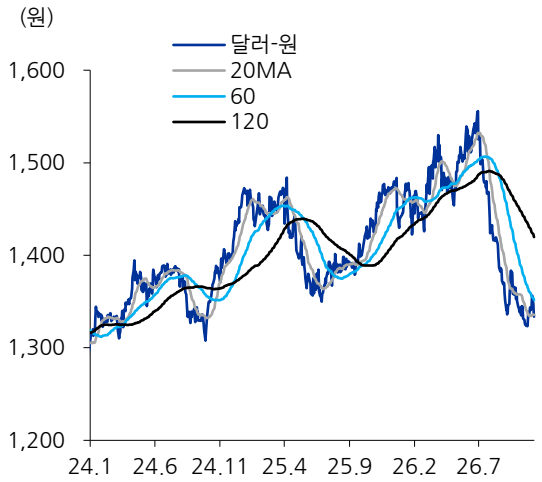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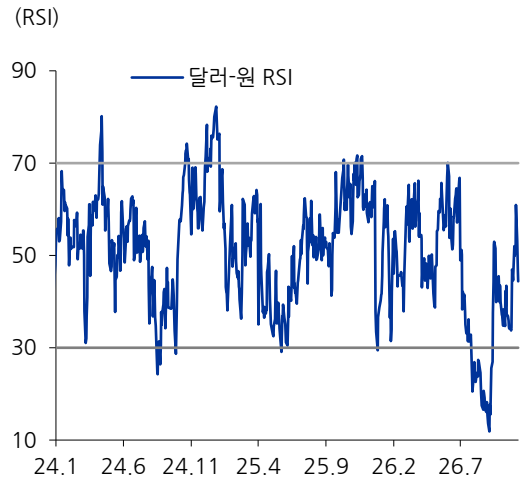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1/1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33.60	-0.3%	-0.6%	-7.3%
	달러지수	102.92	0.7%	1.4%	4.7%
	달러/유로	1.11	-0.7%	-1.2%	-5.6%
	위안/달러(역외)	6.67	-0.1%	0.0%	-4.5%
	엔/달러	159.80	0.7%	0.9%	2.0%
	달러/파운드	1.33	-0.5%	-1.5%	-1.4%
	헤알/달러	5.58	0.0%	2.2%	1.2%
상품	WTI 근월물($)	86.42	0.4%	-1.9%	50.5%
	금 현물($)	3,987.72	-1.1%	-1.8%	-7.7%
	비트코인($)	74,460	0.9%	-7.3%	-15.3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d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美 긴축 우려에도 수출기업 네고와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수에 -3.90원 내린 1,333.60원 마감(야간 1,337.50원).
- 美 10월 CPI 예상 상회는 원화에 부담이었으나 수출업체 달러 매도가 원/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. 11월 1~10일 수출은 334.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+111.9% 증가함.
- 코어위브의 호실적이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우려를 완화. 외국인은 장중 매수로 전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,600억원 순매수. 위험선호 회복과 주식 수급 개선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.
-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는 달러 강세를 지지하나,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달러-원 상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물가 부담과 추가 긴축 기대에 강세(DXY +0.7%).
- 전일 발표된 美 10월 CPI가 예상을 상회한 영향이 지속됨. 금리선물시장은 물가 발표 이후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함(11/11, 11.6%). 미국의 예상 금리 경로가 높아지며 달러 상승을 견인.
- 코어위브의 호실적과 앤트로픽 IPO에 공모 물량 수 배의 수요가 몰렸다는 소식에 위험선호 회복되며 美 기술주가 반등한 점 또한 달러 강세를 지지.
- 美 10월 PPI(11/13 발표)에서도 강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인될 경우, 연준의 긴축 기대가 강화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.